

# 새로워진 광주FC ... 뜨거워진 응원 열기



재도약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광주FC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광주는 2023시즌 '시민에게 믿음 주고 팬들에게 사랑받는 광주FC'라는 가치를 내걸고 ▲일원화된 조직 체계 ▲선수단 재량 확대 및 기업 후원 유치를 위한 경영방식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과 상생 추구 ▲지역연고 우수선수 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

새 비전을 내세운 광주의 시즌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승으로 결승이 주춤했지만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스타일'의 공격 축구가 축구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해 K리그2 우승팀으로 1부리그로 돌아온 광주는 FC서울과의 홈 개막전에 7357명의 관중을 불러들였다.

또 지난 13일 13라운드 대구전까지 홈에서 열린 7경기에 2만8175명이 입장, 지난해 홈 20경기를 찾았던 총 관중수 2만6154명을 이미 넘어섰다. 평

K리그 1 복귀 공격축구 눈길 지난해 홈 관중 수 7경기만에 돌파 광주은행 등 후원 계약도 최다

균 관중도 4102명에 달하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후원사들도 광주 질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단은 광주은행과 2018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금액도 역대 최다인 30억원(연간 10억원·2025년까지 3년간)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지자체의 후원도 이어지면서 광주센트럴병원, 천지장레문화원, 가야에드, 수완병원 등이 스폰을 약속했다. 현물 후원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23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400%가량 늘어난 수치다.

후원의 집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60개 점포를 넘어섰고, MD샵 매출도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광주에 훈풍이 불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민재, 맨유와 계약 임박...이적료 872억 예상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챔피언인 나폴리의 '철기둥' 김민재(사진)의 새로운 동지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로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인 '일 마티노'를 인용해 "맨유가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와 계약에 임박했다"라며 "김민재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나폴리도 33년 만에 세리에A에서 우승했다. 이런 점이 김민재를 향한(구단들의) 큰 관심을 끌어들였다. 맨유가 영입 경쟁에서 이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일 마티노'에 따르면 김민재와 맨유는 이적의 세부 사항 정리만 남긴 상태고, 나폴리도 김민재 대체자 찾기에 나섰다. 김민재의 예상 이적료는 5200만 파운드(약 872억원)에 달한다.

데일리 메일은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떠나 약 1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나폴리에 왔다. 나폴리도 이번 이적이 성사되면 매혹적인 이적료 이익을 얻는다. 김민재의 바이아웃 금액은 4400만 파운드-5200만 파운드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보여준 김민재의 활약에 맨유뿐만 아니라 첼시, 리버풀, 토트넘(이상 잉글



랜드),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공식전 43경기(정규리그 33경기 포함)를 치르는 동안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김민재가 출전한 세리에A 경기에서 나폴리는 15경기나 클린시트(무실점)를 달성했다.

이번 가운데 수비진 강화가 절실한 맨유가 가장 적극적으로 김민재 영입에 나선 상태다.

맨유는 현재 다음 시즌을 내다보면서 중앙 수비수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매체 팀포크는 "하파엘 바란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에릭 텐하흐 감독의 수비 옵션에서 빠졌다"라며 "맨유가 새로운 중앙 수비수 옵션으로 김민재를 선택하면 해리 매과이어와 빅토르 린델뢰프가 이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적이 성사되면 김민재는 박지성 전북현대 테크니컬 디렉터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맨유 유니폼을 입는다. /연합뉴스

## 펠레 '황금 관' 공개 ... 추모객들 발길 '복적'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축구 황제' 펠레의 시신이 담긴 '황금 관'이 공개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AFP, AP통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투스네의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 내 펠레가 안장된 묘소가 일반에 개방됐다.

14층 높이의 이 공동묘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동묘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이다.

본래 펠레는 생전에 활약한 산투스FC의 빌라 베우미루 경기장이 내려다보이는 9층에 안장됐다.

그런데 더 많은 팬의 발길이 이어지기를 위한 유족의 뜻에 묘소가 약 200㎡ 면적의 2층 별실에 새

로 마련됐다.

축구공을 밟고 있는 펠레의 황금 조각상이 입구 양측에 설치된 가운데 그라운드처럼 인조 잔디가 깔린 바닥에 황금 관이 놓였다. 벽면에는 펠레의 플레이에 환호하는 팬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걸렸다.

펠레의 아들 이자뉴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아버지와 함께 한 사람들이 큰 사랑을 담아 만들어주셨다"며 "(아버지께) 쏟아지는 애정과 존경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펠레는 지난해 12월 암 투병 끝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펠레의 아들 이자뉴가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주 산투스네의 네크로폴 에큐메니카 공동묘지에서 펠레의 시신이 담긴 '황금 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1부리그에서 새로 시작한 광주FC가 올 시즌 관중 동원·후원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FC와의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팬들이 응원을 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 KIA 위기 탈출 '선취점'에 달렸다

선취점 낸 경기 13승 2패 선제 실점에는 1승 15패



KIA 타이거즈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싸움'이 중요하다.

부상 악재로 막을 연 KIA의 2023 시즌은 롤러코스터다. 14일까지 31경기

를 소화하는 동안 '스윙'이 4차례 있었다.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척에서 진행된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첫 싹쓸이 3연패를 당했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잠실에서 치러진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도 승리로 장식했다.

스윙승도 두 차례 기록했다. 4월 21일부터 안방에서 진행된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낚아챘고,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잠실에서 치러진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도 승리로 장식했다.

올 시즌 5연승 질주도 했지만 5연패도 벌써 두 번이나 기록하는 등 기록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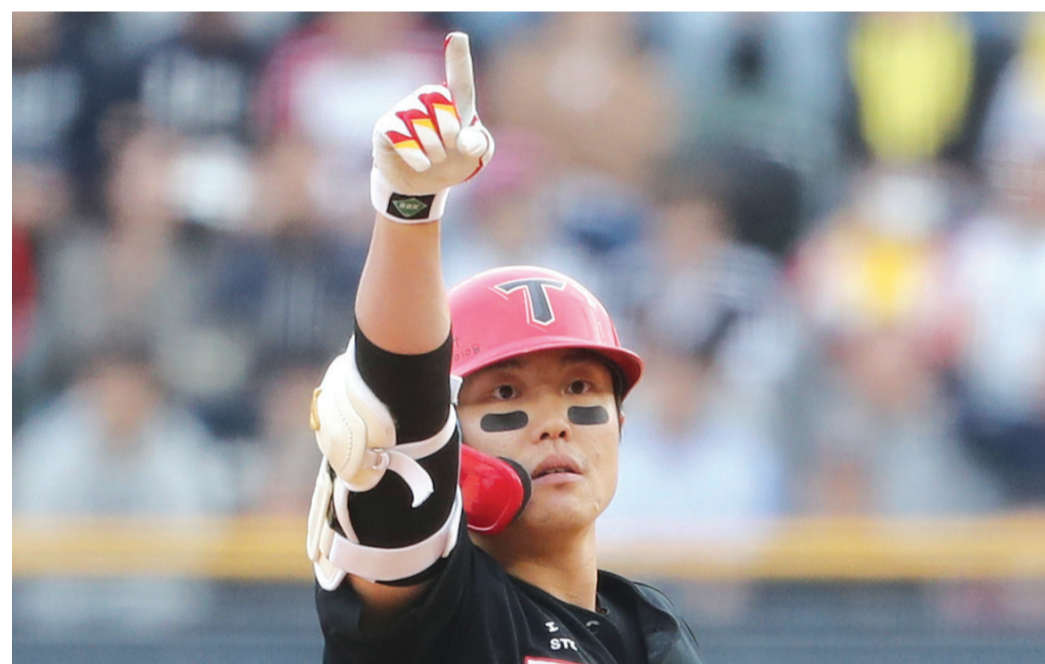
안정감 있게 승률을 쌓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싸움'이다.

31경기를 치르는 동안 KIA는 14승 17패, 0.452의 승률을 기록했다.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선취점' 싸움에서 승패가 갈린 모습이다.

KIA는 선취점을 만든 경기에서 13승 2패, 0.867의 승률을 장식했다. 선제실점을 한 경우의 성적은 1승 15패,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치면서 0.063의 승률이 기록됐다.

지난 주말 두산전 스윙패 당시에도 KIA가 모두 선제 실점을 했다.

12일 경기에서는 선발 이의리가 1회 1사 3루에



류지혁

서 양의지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으면서 1실점 했고, 그대로 경기가 1-6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안타는 결승타가 됐다.

13일에는 1회부터 유격수 박찬호의 실책이 나오면서 메디나가 3실점을 했고, 경기는 1-5 패배로 끝났다.

14일에는 양현종이 초반 위기를 넘기며 실점을 막았지만 4회 3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선취점을 내줬다. 이날 최형우가 7회초 동점 스리런을 날리면서 분위기를 바꿨지만 수비가 흔들린 KIA는 '홈런=승리' 공식을 살리지 못하고, 4-8패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IA의 선제실점 성적은 1승 15패가 됐다.

일단 점수를 뽑아놓고 기본 종계 분위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 그만큼 테일러를 세트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1회부터 상대 배터리를 흔들면서 승리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5연패 상황에서 대구로 간 KIA는 16일 경기에서 류지혁과 김선빈으로 테일러를 구성했다.

앞선 두산 3연전에서는 류지혁-고종욱, 박찬호-이정진, 류지혁-고종욱이 공격 전면에 섰다.

류지혁은 올 시즌 톱타자로 가장 많은 경기에서 83타수 27안타, 0.32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욱 감독은 또 이날 반전이 필요한 김선빈을 2번에 배치했고, 고종욱에게 3번 타자 역할을 맡겼다.

'선취점' 싸움에서 성패가 갈리고 있는 KIA가 끈질긴 승부로 순위 싸움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다음달 실전 피칭 ... 7월 복귀 속도 낸다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7월 중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를 향해 속도를 낸다.

로스 앤젤ิส 토론토 단장은 16일(한국시간) 캐나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류현진과 채드 그린은 다음 달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현진과 그린은 팔꿈치를 수술해 현재 토론토의 스프링캠프 시설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

든에서 재활 중이다. 옛킨스 단장은 지난주 더니 든을 찾아 두 투수의 재활 과정을 지켜봤다.

지난해 6월 수술대에 올라 일찌감치 시즌을 접은 류현진은 캐치볼, 볼펜 투구 등을 거쳐 다음 달 1년 만에 실전에서 감각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올스타 휴식기 직후인 7월 중순을 복귀 시점으로 전망했다. MLB닷컴은 류현진과 그린의 첫 실전 등판 후 토론토 구단이 두 투수의 복

귀 시간을 더 명확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토는 15일 현재 24승 16패를 거둬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를 달린다.

류현진이 빠진 선발 투수진에서 일본인 좌완 기쿠치 유세이와 우완 크리스 배시가 나란히 5승씩 최다승을 수확했다.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한 호세 베리오스(3승)와 케빈 가우스먼(2승)은 부진하거나 승운이 없었다. 류현진을 형처럼 따르는 알렉 마노야는 1승 3패, 평균자책점 5.36으로 좋지 않다. /연합뉴스